

안동시 능동 시조 太師公 춘계향사

수임에 안동 풍산의 權五寅씨



▲ 시조 태사공 한식 춘향이 봉행되고 있다.



▲ 권오인 수임이 당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 陵洞에 소재하는 태사공太師公 묘소에서 2010년, 경인庚寅년 춘계향사가 4월 6일 한식일寒食日에 봉행되었다. 이날은 권기權紀 108년 병술丙戌, 음력으로 2월 22일이다.

묘하의 능동재사陵洞齋舍에는 전일 오후에 권오인權五寅 수임 이하 재유사 및 별유사 등이 입재入齋하였고 금년 전국 청년체전의 개최지인 청송청·장년회에서 권병섭權丙燮 회장과 회원들이 일찍 입재하여 원근에서 도착하는 참제원의 도기到記와 안내를 도왔다. 시조 태사공의 향사는 전일에 입재하여 당일 평명행사를 관행으로 해오고 있다. 재사에서 제공하는 저녁식사를 마친 뒤 오후 7시에 능동재사의 정당正堂에서 대당회大堂會가 열렸다.

권순갑權純甲 간사장의 사회로 시조묘소에 대한 망배望拜

후 의례와 상읍례를 행하고 나서 회의를 시작되었다. 대당회의장인 안동시 풍산읍 노리의 북야공과 권오인 수임은 ‘삼라만상이 약동하는 새 봄을 맞아 시조 태사공의 춘향의 도유사를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우리 권씨로 득성得性하신 태사공께서 안동에 터전을 닦은 지 108년 성상에 역세歷世 선조들의 유훈을 받들어 도학문장道學文章 등 모든 미서微緒가 현세로 전승되어 이 지역의 중심세력을 형성하여 왔음은 오로지 시조께서 심인적덕深仁積德하신 유택流澤이 후손에게 무궁한 휴상休祥을 내려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자손들은 전통적인 효우돈목의 유덕을 충실히 실천하여 위로는 조상에 대하여 추원보본追遠報本の 성誠을 다하고 아래로 족친간의 윤리친화의 정을 두터이 하면서, 삼가 조무祖武를 계승하고 손모孫謨를 천추千秋에 전하며, 존조尊祖와 경종敬宗에 가일층 노력하여 자손만대 권문의 영광을 이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명일 향례는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봉행하여 주길 당부한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였다.

권정달權正達 대총회장은 ‘원근 각지에서 오신 족친께 감사드리며, 아시조 남중공의 단소가 여러분의 협조로 성공적으로

이전되었다. 현안의 대총회와 중앙종친회간의 통합은 일단 유보하게 되었다. 중국 및 일본 등 해외에서 후손이 참제한 것이 고무적이며, 이같이 시조 태사공의 향사가 자리를 잡아간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 권정달회장은 능동재사진입로 확보장에 유공한 권영준 안동시의회 사무국장과 추원루보강공사에 3억원의 예산을 배정받도록 힘쓴 권인찬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권씨의 사성유래가 담긴 액자를 일본 관동關東종친회와 재중국 길림吉林종친회장에게 전달하였다.

인사소개를 받아 나온 일본 관동종친회 권중만權重萬 회장은 ‘어렸을 때 한국은 몰랐지만 안동이라는 말은 알았다. 시조 춘향에 참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였다. 중국 길림성에서 온 권순기權順基 회장은 두 가지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며 ‘첫째로 날씨가 좋았다. 둘째로 중국에는 그곳에 영기가 있으면 인물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안동에 와 보니 정말 그런것 같다’고 하여 박수를 받았다.

중무보고에 이은 권주연權宙衍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고 2009년도 결산보고, 권영한權永漢 남중공단소이단위원장이 나와 이단사업에 관한 결산보고를 하였다. 권순갑 간사장이 제례헌금 접수보고를 하고 나서 기타토의 안건으로 ‘능골 입구 고택 대지 사용신청 요망과 ‘능동춘추 태사공 영정 판매에 관한 건’을 상정하였다.

능골 입구의 고택 대지 건물, 이곳에 남중공의 유허비를 세울 부지로 삼고자 하는데, 이곳이 종종 소유이나 그 지상권을 임차해 있는 권성인이 향후로도 계속 사용하도록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를 어찌할 것인지 결정을 요하는 내용인데, 이는 그 지상권의 연장계약을 해주지 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중보사의 ‘태사공 영정 판매에 관한 건’은 권경석權景晷 중앙종친회 사무장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능동춘추지에 난 중보사의 안내공고문을 복사해 와서 제시하며 ‘최근에 사진 및 액자에 대한 족친의 문의가 와서 전화로 강대 권유하는 사례



▲ 초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가 있어 이에 대해 중앙종친회의 중보에 이것이 대총회 및 중앙종친회 명목이 아니라는 공고를 냈다는 취지로 중보사에 성토를 가했으나 이는 사실이 왜곡된 것이었다. 영정 사진 문제는 중보사에서 그동안 비공식으로 그 인화본을 요구해오는 사례가 있어 송조심의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을 감안해 그 현상인화료와 표구비만을 입금해오면 이를 품격에 맞게 제작해 봉사하겠다는 취지이고, 여기에 전화 강매니 권유니 하는 것은 사실무근의 과장이었다.

이 성토에 편승하여 권혁승權赫昇 추밀공종회장이 양촌선생기념사업회와 중보사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양촌 문충공 권근權近 선생의 국가표준영정제작 사업에 대해 이를 대총회 차원에서 제지시킬 것을 발의하며 ‘중보사에서 수년간 모금을 해왔는데 문충공 종중에 알아보니 종중에서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하며 매우 격양된 어조로 저간의 상황을 설파하였다. 권정달 회장은 양촌 문충공 표준영정건은 지파중중의 문제인만큼 추밀공파종회에서 맡아 처리하도록 하고 시조 태사공 영정건은 대총회에서 조사해 대처하겠다고 하였다.

대당회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 회장단 연석회의가 열렸다. 금년 4월 25일 일요일에 경북 청송에서 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권병섭權丙燮 청송청년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권정달 대총회장이 3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작년 추향시 500만원을 지원키로한 것보다는 감액된 규모였다. 이번 청송체전은 권병섭 회장이 3천만원을 행사비로 내놓아 잘 치루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었다.

권병섭회장이 인사말에 이어 각 지역 회장단을 일일이 소개하고 나서 체육대회 일정에 대해 말하고 대진표 추첨을 하려고 하자 좌중에서 대진표는 시간이 없으니 집행부에서 추첨하여 발표해 달라고 하였다.

모두 동의했다.

익일 아침 9시에 추원루追遠樓에서 집사분정을 하였는데 와룡초교장인 권재도씨가 과록을 하였다. 분정된 헌관 및 집사자는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권오인權五寅
아헌관 : 권중만權重萬
종헌관 : 권순기權順基
진설 : 권기진權奇震、권희철權熙喆、권혁환權赫煥、권병균權丙均、권상용權相用、권경섭權慶燮
축 : 권준식權俊植
찬자 : 권용학權容學
봉향 : 권혁인權赫寅、권호준權鎬俊、권오운權五雲
봉로 : 권기호權奇浩、권오덕權五德、권오훈權五堧
봉작 : 권혁대權赫大、권충화權忠和、권영길權寧吉、권혁채權赫彩、권혁기權赫基、권종기權琮基
전작 : 권동일權東一、권기웅權奇雄、권석원權錫遠、권순태權純泰、권순일權純一、권기옥權奇郁
사준 : 권영걸權寧杰、권병섭權丙燮、권정택權貞澤、권기덕權奇德、권의철權義喆、권용일權龍一

집사분정을 마치고 나서 초헌관 이하가 재사를 나와 연도에 도열하여 국궁을 하고 제수를 봉송하였다. 묘소에 10시에 도착하여 1시간 동안 제향을 올리고 나서 다시 하산하여 추원루追遠樓에서 제공사祭公事와 음복례를 펼친 것이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묘소에서 향례와 후도제가 끝난 다음 뒤늦게 도착한 용인종친회원 일행 19명은 성묘를 하고 같이 하산하여 음복례를 지켜보고 나서 귀향하였다.

금년 가을 추향 도유사 및 재유사 망기가 추원루에서 발송되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도유사 : 권태원權兌遠(대전) 재유사齋有事 : 권용진權容晉、권순택權純澤、권혁기權赫琦、권영흥權寧興、권오행權五行、권영순權寧洵

<사진·글 權允>



▲ 안동권씨 청·장년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제물을 봉송하기 위해 추원루를 나온 헌관 이하가 도열해 있다.